

#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 - Q방법론적 접근 -

문소현<sup>1</sup> · 박영주<sup>2</sup>

<sup>1</sup>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sup>2</sup>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Types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Women - A Q-Methodological Approach -

Moon, So-Hyun<sup>1</sup> · Park, Young-Joo<sup>2</sup>

<sup>1</sup>Part-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women. **Methods:** The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individual's subjectivity was used. The 32 subjects classified 50 selected Q-statements on a 9 point scale to make a normal distribu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 PC-QUANL program. **Results:** Five types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women were identified. Type I: Direct attacking expression type, Type II: Mature consideration type, Type III: Passive indirect expression type, Type IV: Avoidance conversion type, and Type V: Expression control type.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different approaches of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are recommended based on the five types of anger express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Key words:** Adolescent, Female, Anger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 중 분노는 비행행동 및 학교 폭력의 주요 유발인자로 여겨지고 있고(Armistead, Wierson, Forehand, & Frame, 1992), 높은 분노수준과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양식이 청소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 학교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azaleus & Deffenbacher, 1986; Kho, 2000; Kim, 2001).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서, 특히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의 분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Chae, 2001).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분노라는 정서에 상당히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를 연구할 때 성차를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Deffenbacher & Swaim, 1999; Park et al., 2006), 성을 분노 표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Daniel, Kristofer, Java, & Robert, 1996). 실제적으로 이러한 분노의 정서는 남녀가 다르게 경험하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dorow, 1989; Hammen & Compas, 1994). 특히 청년기 여성의 경우 분노 표현 방식이 주로 억제형으로 나타나고(Chae, 2001; Park et al., 2004), 현대사회에 와서 유교적 전통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 여성 특유의 분노 표

주요어 : 청소년기 여성, 분노표현, Q-방법론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on, So-Hy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252 Daeho-dong, Naju 520-714, Korea

Tel: 82-61-330-3587 Fax: 82-61-330-3588 E-mail: bonjourmsh@dsu.ac.kr

투고일 : 2008년 4월 10일 심사외의일 : 2008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4일

출 유형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Kwon,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을 보고자 수행된 연구는 저조하며(Modrcin-McCarthy, Pullen, Barnes, & Alpert, 1998; Musante, Treiber, Davis, Waller, & Thompson, 1999), 특히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 이해와 관련되어 수행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분노표현 관련 선행 연구에서 분노표현 측정도구로 Spielberger (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Jorgensen, Johnson, Kolodziej, & Schreer, 1996), 분노대응의 표현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요인분석을 통해 분노척도의 광범위한 영역을 규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Kerby, Brand, & John, 2003; Linden et al., 2003).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성,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뿐 아니라 민족을 고려하여 분노표현의 속성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Lee & Cho, 1999; Musante et al., 1999; Park et al., 2005). 한편, 분노표현 유형은 개인의 평가와 해석에 의한 인지과정의 결과인 분노에 대해 개인이 전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화가 나는 느낌에 대한 개인의 대응하는 행동적인 차원을 일컫는 것으로 각 개인의 특유한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주관성이 고려된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와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간호사로 하여금 청소년기 여성의 다양한 분노표현 유형을 이해하도록 돕고 각 유형별 특성의 이해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분노 조절 및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을 규명하는 것과, 유형별 특성 확인은 향후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학교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에 대한 주관적인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을 확인한다.

둘째,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별 특성을 분석·기술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절차

#### 1) Q-모집단 및 Q-표본의 구성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고,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concourse를 구성하였다.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에 대한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심층면담 대상자는 K지역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1개교와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 1개교 2, 3학년년을 대상으로 면담 이후 Q-방법론에 따른 카드 분류와 심층면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기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청소년기 여성에게 전화 연락하여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들로 2006년 6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수행하였고, 심층면담은 Q-모집단 구성을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문계 18명, 실업계 3명 총 21명의 청소년기 여성이 참여하였다.

심층면담은 분노에 대한 행동적 양상뿐 아니라, 분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분노표현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자 “귀하는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귀하는 분노를 느낄 때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화를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등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청소년들은 자아의식 때문에 자기주장이 방해, 간섭, 저지받았을 때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부당한 취급을 받아 무시 경멸을 받을 때 또는 개인의 자유를 속박당했을 때(Jung, 1988; Kim, Maeng, & Kim, 1988) 분노를 느낀다고 한 분노 유발 요인 문헌을 토대로, 더 실제적인 분노표현의 자료를 얻고자 간호학 교수의 검토를 거친 후 분노 유발 상황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분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표현하도록 진행하였다.

본 연구 주제인 ‘분노표현’은 청소년기 여성의 주관성이 함유된 개념이므로 Q-모집단의 자아 참조적 진술문들 중에서 의미가 명확하고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별 판별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선택되 비슷한 분노표현의 내용일지라도 원인지각의 이유가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되면 독립된 각각의 항목으로 Q-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진술문들은 간호학 교수, 간호학 박사과정생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선택된 Q-표본은 긍정, 부정, 중립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된 후 최종적으로 50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2) P-표본 선정

연구 대상자인 P-표본은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미 Q-모집단 구성을 위해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후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기 여성을 포함하여 2학년 재학 중인 인문계 27명, 실업계 5명 총 32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3) Q-표본 분류

Q-분류는 선정된 청소년기 여성들에게 분노표현에 관한 50개의 Q-표본(진술문이 적힌 낱장의 카드)을 하나씩 빠짐없이 읽으면서 주관적인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각 항목들이 강제적으로 유사정상분포(forced quasi-normal distribution)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Q-분류가 끝난 후 P-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 지금까지 가장 화가 났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Q분류상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항목에 대하여 그 이유를 면담하였다.

4) 자료 분석

P-표본으로 선정된 32명의 청소년기 여성들이 분류한 50개의 Q-진술문들을 각 P-표본이 동의 또는 비동意的한 수준에 따라 가장 동의하지 않은 항목(‘자’, -4)에 1점을 시작으로 가장 동의하는 항목(‘가’, +4)에 9점을 주어 자료 파일(data file)에 입력한 뒤 PC-QUANL Program으로 각 항목의 표준점수(Z-score),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한 Q-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적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Eigen value 1.0 이상이면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요인 간 독립적이며 고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QUANL Program에서 산출한 결과, 수행가능 요인 중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요인 수를 4개로 하였을 때 Eigen 값

Table 1.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Type V
Eigen values	9.5766	4.7869	1.9650	1.3029	1.2658
Variance (%)	26.67	14.96	6.14	4.07	3.96
Cumulative percentage (%)	26.67	41.63	47.77	51.84	55.80

이 1.0 이상이면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요인마다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 5가지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정 후 각 유형을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1.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 형성

연구 대상자들의 분노표현 유형의 주관성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연구 대상 P 표본 32명 중 유형 I에 13명, 유형 II에 9명, 유형 III에 3명, 유형 IV에 6명, 유형 V에 1명이 포함되었고, 각 유형 내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은 각 유형을 분류하는데 기여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속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 5개의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26.67%, 2유형이 14.96%, 3유형이 6.14%, 4유형이 4.07%, 5유형이 3.96%로 나타났고, 전체 유형의 설명력은 55.80%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여성의 5개 분노표현 유형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아 각 유형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2).

2.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별 분석

각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Q-표본으로 확정된 50개 Q-진술의 표준점수, 각 유형별 요인가중치(factor weights), P-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토대로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을 분석하여 각 유형별 분노표현 특성을 밝혔고, 아울러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 P-표본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과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을 선정한 이유를 담은 녹취록과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및 면담 시 관찰내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별 특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형의 명명은 질적 자료 분석과 Q-방법론을 이용한 간호학 논문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	I	II	III	IV	V
I	1.000	0.201	0.147	0.264	0.422
II		1.000	0.235	0.609	0.333
III			1.000	0.335	-0.231
IV				1.000	0.477
V					1.000

교수 4인, 정신간호학 전공 교수 1인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1) 유형 I: 직접적 공격표출형

유형 I에 속한 청소년기 여성은 총 13명으로 가족관계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는 P-28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친이 모두 생존해계셨다.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 '날 무시하고 자존심 건드리고, 우습게 볼 때'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를 배신하거나 내 뒤에서 욕을 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될 때', '억울할 때'라고 기술하였다.

제I유형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은 '기분이 나빠서 감정을 실어서 욕설을 마구 퍼붓는다(표준 점수=2.148)',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고 증오심이 불타서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약점을 말하고 나면 후련하다(표준점수=1.746)'였다. 반면 제I유형이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화를 터트리는 것보다 참을 경우에 속상한 마음이 덜 들고, 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참는다(표준점수=-1.592)', '화를 내면 낼수록 습관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 화를 참는다(표준점수=-1.231)'이었다.

제I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기분이 나빠서 감정을 실어서 욕설을 마구 퍼붓는다(Z값 차이=2.267)',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고 증오심이 불타서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약점을 말하고 나면 후련하다(Z값 차이=1.985)' 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 화난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화가 풀릴 때까지 혼자 속앓이를 한다(Z값 차이=-1.773)', '다툼을 피하려고 화가 나면 방문, 창문 잠그고 나 혼자만 고립(격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나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서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Z값 차이=-1.575)' 이었다(Table 3).

제I유형의 전형인 대상자는 18세 인문계에 재학 중인 여고생으로 형제관계는 2녀 중 첫째였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경제 상태는 중으로, 학업정도는 중간이었으며,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라고 표현하였다. 면담 중 "남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이 참으면 자존심이 상한다 해야 하나? 괜히 지는 느낌이 들어서 화를 더 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화난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화나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맘에도 없는 말을 더 하면서 비하시키고 욕을 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기분이 들면 상대방을 꺾고 또 꺾아 내려요."라고 표현해 화가 난 상황을 참지 못하고 분노에 대한 반응을 하며, 내가 화난 이상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비하시키면서 기분이 풀리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화난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드러냄을 알 수 있다. "남이 시비를 걸 때 단 한 번도 수그린 적이 없고 다툼을 피하는 행위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라고 할 정도로 화나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화를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 I에 속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화를 참지 않고 분노유발 대상자에게 외현적으로 욕설하기, 비난하기,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처주는 언어적 공격행동이나 물건 던지기, 물건 발로 차기 등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물리적 가해, 화난 표정 지어보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적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화가 났음을 알리고 더 이상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차원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화를 풀어 해결을 보고자 하는 신호로 분노를 표현할 정도로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분노를 일으킨 대상자에게 직접 화를 해소하고 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에 자신의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쏟아냄으로써 해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유형 I을 직접적 공격표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Table 3. Type I Item and Z-score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30. I am so angry that I hurl a stream of abuse	2.148	-0.119	2.267
29. I feel easier after I hurt other people making me angry by pointing out their weak points or fatal flaws	1.746	-0.239	1.985
36. If I endure angry, I will burst into a rag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 usually get angry instead of putting up with something which makes me angry	1.304	-0.233	1.537
4. I think suppressing my anger is better to my mental health than losing my temper	-1.592	-0.195	-1.396
40. I try to avoid any quarrels. When I am angry, I close doors and windows to make me isolated from others and leave me alone in my own area	-0.889	0.686	-1.575
49. I do not express anger directly. Instead, I look back on the angry situation and have a hard time in suppressing my anger until my anger is gone	-0.859	0.914	-1.773

## 2) 유형 II: 숙고형

유형 II에는 9명의 P-표본이 포함되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고 있는 P-13, 모친 사망으로 할머니와 살고 있는 P-16을 제외한 7명은 양친 모두 생존해 있었다.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되거나, 내 할 일을 못했을 때', '날 무시하거나 내 뒤에서 욕할 때', '이유 없이 욕을 들었을 때', '엄마가 의심하고 이해해주지 않을 때', '부모님이 나 내 친구를 욕할 때', '내 의견과 대립될 때'라고 기술하였다.

유형 II가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 화난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화가 풀릴 때까지 혼자 속앓이를 한다(표준점수=1.623)', '화가 날 때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내 편에서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에 친구의 의견을 듣고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표준점수=1.534)'였으며 가장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화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며, 피고 나면 개운하게 잊혀지는 것 같다(표준점수=-2.645)', '벽이나 문을 때려서 내 몸에 상처가 나면 화가 살짝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풀리게 된다(표준점수=-2.392)'이었다. 또한 제II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화를 내기보다 참으면 일이 해결되고 나중에 더 좋게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화를 꼭 참고 열을 삭인다(Z값 차이=1.667)', '화를 터트리는 것보다 참을 경우에 속상한 마음이 덜 들고, 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참는다(Z값 차이=1.635)'였다. 타 유형에 비해 Z값이 -1.00 이상의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화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며, 피고 나면 개운하게 잊혀지는 것 같다(Z값 차이=-1.356)', '벽이나 문을 때려서 내 몸에 상처가 나면 화가 살짝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풀리게 된다(Z값 차이=-1.456)'였다(Table 4).

제II유형의 전형인 P-15 (요인가중치 .9890)는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을 상처를 주는 말을 듣거나 나와 의견이 대립될

때, 무시당한 기분이 들 때라고 표현하였다. "혼자 삭인다라고 할까?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싸워봤자 별로 좋은 일이 없으니깐 순간순간 참으면 화를 내기보다는 일이 더 좋게 풀리는 것 같아요. 화를 내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잖아요."라는 표현에서처럼 화를 내고 나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분노를 느끼는 순간 참고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 우선 화가 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서 남을 상처 준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은 원치 않으므로 화가 나면 참게 된다고 표현했다.

유형 II에 속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표현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반응하는 유형이다.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상황 악화 방지, 타인시선을 염려하기 때문에 화난 순간 분노를 유발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타인에게 해가 되는 공격적인 행동도 피할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이미지에 피해가 되는 방법으로도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분노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이차적 이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분노상황에서 참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유형 II를 숙고형으로 명명하였다.

## 3) 유형 III: 수동적 간접표출형

유형 III에는 3명의 P-표본이 포함되었으며,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자존심 상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날 무시하거나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나에게 할 때'라고 기술하였다.

유형 III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은 '화가 나면 너무 서러운 기분이 들어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안 나게 운다(표준점수=1.800)', '서로 싸우는 것도 싫고 원만

Table 4. Type II Item and Z-score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3. I think suppressing my anger help me solve any serious problems and achieve good results, I do my best to restrain my anger as much as possible	1.378	-0.289	1.667
4. I think suppressing my anger is better to my mental health than losing my temper	0.833	-0.802	1.635
2. I am afraid what others think of me who easily express anger. Therefore, I do my best to restrain my anger in order to improve my personal image	1.101	-0.381	1.482
36. If I endure angry, I will burst into a rag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 usually get angry instead of putting up with something which makes me angry	-0.874	0.312	-1.186
45. When I am irritated, I depend on smoking to solve my stress and restrain my anger. Smoking helps me to feel better and make me comfortable	-2.645	-1.289	-1.356
24. Hitting me against doors or walls to get wounded helps me feel refreshed	-2.392	-0.936	-1.456

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무어라 중얼거리고 삼킨다(표준점수=1.272).’ 였으며, 가장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상대방이 맞아야 정신 차리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나게 한 친구를 때린다(표준점수=-2.158).’,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고 증오심이 불타서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약점을 말하고 나면 후련하다(표준점수=-1.633).’ 이었다. 또한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화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며, 피고 나면 개운하게 잊혀지는 것 같다(Z값 차이=2.184).’, ‘대상자에게 화를 풀 수도 없고, 분출할 데가 없어서, 화를 분출해서 해소하려고 사물함이나 책상, 의자를 발로 찬다(Z값 차이=2.005).’ 였고,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비동의를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고 증오심이 불타서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약점을 말하고 나면 후련하다(Z값 차이=-2.239).’, ‘벌을 준다는 생각과, 상대방이 상처를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꺾어내리고 상처 주는 막말을 하게 된다(Z값 차이=-2.300).’ 의 결과는 타인에게 언어적 공격과 같은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Table 5).

유형 III의 전형인 P-25 (요인가중치 .2154)는 인문계에 재학 중이며 1남 1녀 중 첫째로 경제 상태는 중, 학업정도는 중간이라고 하였으며,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자존심 상할 때라고 하였다. “화나게 한 사람을 처음엔 원망을 하죠. 개는 내가 자기 때문에 고민하고 성질나는 것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울고 나면 탁 터는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대상자에게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원망하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며, 대상자를 향한 직접적인 분노표현이 아닌 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해소함을 알 수 있었다. “글을 써요, 그래서 말대꾸하는 대신에 그것을 다 써요. 말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말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다보면 어느

순간에 제 모순을 찾게 되고, 절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을 글을 쓰는 과정 중에 감정을 표출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결됨을 추측할 수 있다.

유형 III에 속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분노대상에게 직접 표현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분노를 억제하고 스스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이다. 글 쓰기, 혼자만의 시간 갖고 생각하기, 대상자를 겨냥하지 않는 물건 던지는 행위를 통한 해소,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는 행위, 혼자 중얼거리기 등을 통해 대처하곤 한다. 이 유형은 화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원망, 억울한 정서가 있지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을 대하게 되고, 분노를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해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어 남아 있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즉,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상처받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욕구에 의해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직접 투영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잊혀지게 되는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유형 III을 수동적 간접표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4) 유형 IV: 회피 전환형

유형 IV에는 6명의 P-표본이 포함되었으며,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나에게 대해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친구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알았을 때’, ‘날 무시하고 헐뜯을 때’, ‘부모님이 학업에 대해 꾸중하실 때’, ‘소외되거나 무시당했을 때’ 였다.

유형 IV가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은 ‘짜증이 났을 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순화가 되는 것 같아서 조용히 방에서 음악을 듣는다(표준점수=2.069).’,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고 포만감, 충족감이 들어서 이겼저것 먹게 된다(표준점수=1.433).’, ‘기분이 좋아지고 잊어버릴 수 있

Table 5. Type III Item and Z-score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20. When I am angry, I unconsciously throw something before me because this behavior helps me get rid of stress	1.855	-0.795	2.650
45. When I am irritated, I depend on smoking to solve my stress and restrain my anger. Smoking helps me to feel better and make me comfortable	0.187	-1.997	2.184
21. Since I can't remove my angry or get angry other people making me angry, I hit lockers, desks or chairs	0.894	-1.111	2.005
44. When I have difficulty suppressing my anger, I try to pray to God for help	-2.326	-0.557	-1.769
29. I feel easier after I hurt other people making me angry by pointing out their week points or fatal flaws	-1.633	0.606	-2.239
28. When I am angry, I insult and speak roughly towards people making me angry, thinking that I have to punish them and make them feel pain	-1.598	0.702	-2.300

어서 화날 때 TV나 게임에 집중한다(표준점수= 1.222).’였으며 가장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내가 이만큼 화가 나고, 짜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계속 물건을 발로 차고 때린다(표준점수=-1.531).’, ‘벽이나 문을 때려서 내 몸에 상처가 나면 화가 살짝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풀리게 된다(표준점수=-1.576).’, ‘상대방이 맞아야 정신 차리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나게 한 친구를 때린다(표준점수=-2.142).’였다. 또한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은 ‘짜증이 났을 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순화가 되는 것 같아서 조용히 방에서 음악을 듣는다(Z값 차이=1.924).’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고 포만감, 충족감이 들어서 이것저것 먹게 된다(Z값 차이=1.839).’였고, 타유형에 비해 가장 낮게 비동의를 한 항목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풀어지면 그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마음속에 묻어둔다(Z값 차이=-1.091).’, ‘내가 이만큼 화가 나고, 짜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계속 물건을 발로 차고 때린다(Z값 차이=-1.435).’였다(Table 6).

유형 IV의 전형인 P-21 (요인가중치 1.2783)은 인문계에 재학 중이며 2년 중 첫째로 경제 상태는 중이며, 학업정도는 못하는 편이었고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 부모님이 학업에 대해 꾸중하실 때라고 기술하였다. “화가 났을 때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게 되면 화난 내 마음을 이해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폭식을 하고 나서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들면 화난 기분이 진정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였으며, 화가 났을 때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음악 듣기,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분노 감정이 전환되고, 진정됨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유형 IV에 속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대상자에 대한 분노표출이 아닌 과식, 음악듣기, TV·게임에 집중하기, 타인에 대해 인정받기, 대화를 통한 조연구하기 등 표출 대안 행동을 통해 분노를 순화시키는 유형이다.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분노가 해결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상황 회피 행동을 통해 분노감정을 전환하며, 따라서 분노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해소됨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유형 IV를 회피 전환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5) 유형 V: 표출 제어형

유형 V에는 1명의 P-표본이 포함되었으며,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은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라고 하였다.

유형 V가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와 솔직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을 가릴 수 있고 풀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바로 대화를 시도한다(표준점수=1.500).’, ‘화를 많이 내면 내가 지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내 의견과 상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한다(표준점수=1.000).’의 문항에서 냉정을 유지하고 분노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분노감정을 해결하고자 시도함을 알 수 있다.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를 보인 ‘내 화를 감당하지

Table 6. Type IV Item and Z-score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38. When I am irritated, I try to listen to music in a quiet room to make me comfortable and ventilation	2.069	0.145	1.924
16. When I am angry and offended, I tend to surfeit myself as much as I can to feel comfortable and satisfied	1.433	-0.406	1.839
11. If I am angry, I try to take a deep breath thinking "Above all, I have to suppress my anger" and to get relaxed believing "I am OK"	0.796	-0.271	1.067
7. I try to suppress my anger until I can say the unpleasant situation in a quiet tone	-0.745	0.346	-1.091
22. I continuously hit something with feet to show that I am so angry that I can't keep my temper	-1.531	-0.095	-1.435

Table 7. Type V Item and Z-score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28. When I am angry, I insult and speak roughly towards people making me angry, thinking that I have to punish them and make them feel pain	2.000	-0.197	2.197
44. When I have difficulty suppressing my anger, I try to pray to God for help	0.500	-1.263	1.763
41. I try to concentrate on TV or games to forget something unpleasant and be happy	2.000	0.317	1.683
43. When I am angry, I get sulky with a glum look to show that I am really irritated	-1.000	0.633	-1.633
15. My anger is not gone so easily that I show my nervousness to others	-1.000	0.741	-1.741
12. When I am angry and offended, I try to look back on the angry situation and scribble on paper in order to keep relaxed	-1.500	0.806	-2.306

못할 만큼 화가 나서 너무 힘든 순간에는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느님께 기도한다(Z값 차이=1.763).’의 문항으로 보아 분노감정을 느낄 때 의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행동으로 TV나 게임하기, 수면 취하기 등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신앙의 힘을 빌어 역시 감정을 조절함을 알 수 있다(Table 7). 한편, 유형 I과 유형 V 간의 표준점수의 차이를 보인 문항 중 다툼을 피하려고 화가 나면 방문, 창문을 잠그고 나 혼자만의 고립(격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나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서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유형 I 표준점수=-.889, 유형 V 표준점수=1.000, 차이=-1.889).’에서 유형 I은 상황에 직면해서 화를 표현하는 반면, 유형 V는 상황과 대상자에서 벗어나므로써 분노감정 조절을 통제해 공격적인 표출을 제어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7).

유형 V의 전형인 P-20 (요인가중치 .6019)은 “가능하면 이성을 찾고 아무 일 없다는 뜻이 말걸려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언어적 공격표출은 가능하면 제어하려 함을 추측할 수 있다.

유형 V에 속한 대상자는 분노를 일으킨 대상자에게 상처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언어적 공격 표출과 극한 상황에는 상대를 때리는 신체적 공격표출을 하지만,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공격표출 행동을 지양하고 분노감정을 감소시키고, 조절하려는 특성을 보이는 유형이다. 의도적으로 TV 및 게임에 집중하기, 잠 자기, 친구들의 의견 구하기 등을 통해 분노감정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이성적으로 냉정을 유지하고 분노를 통제할 상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고 분노감정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유형 V를 표출 제어형으로 명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 형성과 그에 따른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각 유형이 주는 의미와 유형별 중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P-표본 32명을 통해서 가장 분노를 느끼는 상황을 확인한 결과,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내 뜻대로 안될 때, 나를 헐뜯할 때, 나를 배신할 때 로 확인되었고, 청소년들은 자아의식 때문에 자기주장이 방해, 간섭, 저지받았을 때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부당한 취급을 받아 무시 경멸을 받을 때 또는 개인의 자유를 속박당했을 때(Jung, 1988; Kim, et al., 1988) 분노를 느낀다고 한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으로 『유형 I: 직접적 공격표출형』, 『유형 II: 숙고형』, 『유형 III: 수동적 간접표

출형』, 『유형 IV: 회피 전환형』, 『유형 V: 표출 제어형』의 5개 유형이 확인되었고,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의 누적 변량이 55.8%인 것으로 보아 5개의 유형의 설명력이 55.8%로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분노표현 유형을 확인한 국외 연구의 경우를 보면, Carter와 Minirth (1993)는 분노의 억제, 노골적인 공격, 수동적인 공격, 주장, 소멸시키기로 제시하였고, Linden 등(2003)은 직접적 분노표출, 주장, 지지추구, 확산, 회피 및 숙고의 6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노표현 유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기 여성은 개인의 가치, 욕구, 신념과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주장 유형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분노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사회적 지지 추구형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건전한 분노표현이란 지나친 분노의 내부 억제나 외적 표출대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된 표출 제어형이 조절형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표출 제어형은 외현적으로 공격표출하는 행위에 대한 이성적 통제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유형으로 완전한 순기능적인 분노표현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5개 모든 유형에서 평균표준점수가 +1.000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비교적 강한 동의를 보인 ‘화가 날 때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내 편에서 도움을 줄거라는 생각에 친구의 의견을 듣고자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평균표준점수=1.28).’의 항목은 모든 유형에서 분노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화가 났을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친구의 동조를 구하고, 지지를 얻게 되는 지지적 추구 방법은 분노유발 상황에 상관없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접근 전략 즉, 화난 것에 대한 친구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그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혹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기와 같은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ark, 1994; Piko, 2001).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선행 연구에서처럼, 제삼자와 분노상황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분노유발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분노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Lee & Cho, 1999).

유형 I 직접적 공격표출형은 화를 참지 않고, 화가 나는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참게 되면 감정이 누적되어 인간관계



가 더 악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분노를 느낀 순간 직접적, 외현적으로 반응하고, 뒤끝없는 해결을 위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특성은 직접적, 폭발적으로 표현했을 때 오히려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Kwon (1994)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분노표현들은 분노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 결과와, Kang (1997) 역시 분노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화가 난 당사자를 더욱 화나게 할 뿐 아니라, 화가 난 태도를 더욱 경직되게 하여 해롭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직접적 공격표출형은 증폭되는 분노의 부적절한 표현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에 따라 외현적인 분노표현이 심리적인 문제로 귀결되지 않도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 공격 표출형의 충동적이고 외현적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심리적,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분노표현 특성과 문제점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분노 관리 및 조절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형 II 숙고형은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나 화난 감정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분노표현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반응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특성은 지지적 추구 성향과 인정욕구 달성을 위한 분노표현 성향은 Piko (2001)의 연구에서 소년보다 청소년기 여성은 수동적이고 지지적 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Piko (2001)의 전략은 유의하게 심리사회적 건강과 긍정적으로 상호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분노 유발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지지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노 잔류로 인한 부정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인내함으로써 해소되지 않는 지속된 분노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정신건강간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형 III 수동적 간접표출형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유형이다. 또한 이미 분노를 억제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고 숙고형보다 분노를 억압하는 성향이 강하며 분노가 오래 지속되어 남아 있게 되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숙고형보다 더욱 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이 저해받지 않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 IV 회피 전환형은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분노가 해소되지 않음을 알고, 대상자에 대한 분노표출이 아닌 표출 대안 행동을 통해 화를 순화시키는 유형이다. 즉 상황 회피 행동을 통해

분노감정을 전환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Linden 등(2003)이 제시한 분노상황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는 회피 분노표현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Carter와 Minirth (1993)의 소멸시키기와 일치하는 유형이다. 또한 분노대처전략을 3가지 전략-표현전략, 회피전략, 접근전략으로 범주화한 분노 대처전략 중 자리에서 떠나기, 재미있는 것 하기가 하위범주에 속해 있는 회피전략이라고 언급한 기존의 연구 내용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Whitesell, Robinson, & Harter, 1991). 소멸시키기를 성공적인 관리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회피 전환형은 의도적으로 상황에 반응함에 따라 단시간에 분노를 소멸할 수 있다는 특성과 관련시켜 볼 때 효과적인 관리전략으로 사료된다.

유형 V 표출 제어형은 대상자에게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공격표출행동을 억제하고 분노를 조절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분노 감정을 이성적으로 억누르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분노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 표출 제어행동을 보이는 성향을 보인다. 이 유형은 공격표출 행동보다는 분노감정을 감소시키고 조절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분노조절을 순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연구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나, 표출제어형이 선행 결과에서처럼 완전한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과 상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접근전략을 분노를 진정하려고 하는 상황에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확인된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개별화된 간호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기 여성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상대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제시된 진술문들은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반복적인 양적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달특성상 정서적 격렬함 또는 정서적 동요를 경험하고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노관리에 실패할 위험성이 있는 집단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표현 유형에 대하여 그 속성의 특성을 고려한 탐색적인 연구의 시도는 분노표현 유형별 개인특유 중심의 상당히 구체화된 중재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분노를 경험하고 분노를 표현하는데 취약한 청소년기 여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고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관리를 조절을 위한 간호중재 및 청소년 정신건강 학교보건교육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으로 『유형 I: 직접적 공격표출형』, 『유형 II: 속고형』, 『유형 III: 수동적 간접표출형』, 『유형 IV: 회피 전환형』, 『유형 V: 표출 제어형』의 5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각 유형별로 효과적인 분노 관리 및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개별화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기 분노표현을 고려한 간호 적용 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표현 유형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성별의 차이를 감안한 청소년기 남성의 분노표현 유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Armistead, L., Wierson, M., Forehand, R., & Frame, C. (1992). Psychopathology in incarcerated delinquents: Does it extend beyond externalizing problems? *Adolescence*, 27, 309-314.

Cater, L., & Minirth, F. (1993). *The Anger-Workbook*.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Chae, Y. K. (2001). *Model testing for anger expression style and anger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Gwangju.

Chodorow, N. J.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Daniel, L. C., Kristofer, J. H., Java, H. K., & Robert, G. F. (1996). Sex differences in anger expression, depressed mood, and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3, 79-92.

Deffenbacher, J. L., & Swaim, R. C. (1999). Anger expression in Mexican American and White Non-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61-69.

Hammen, C., & Compas, B. (1994). Unmasking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problem of comorbidit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 585-603.

Hazaleus, S. L., & Deffenbacher, J. L. (1986). Relaxation and cognitive treatments of ang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22-226.

Jorgensen, R. S., Johnson, B. T., Kolodziej, M. E., & Schreer, G. E. (1996). Elevated blood pressure and personalit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0, 293-320.

Jung, I. S. (1988). *New adolescent psychology*. Seoul: Dawangsa.

Kang, S. D. (1997).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anger control and its validation.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5, 81-143.

Kerby, D. S., Brand, M. W., & John, R. (2003). Anger types and the use of cigarettes and smokeless tobacco among native American adolescents. *Preventive Medicine*, 37, 485-491.

Kho, K. H. (2000). *Trait anger, anger expression and irrational belief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J. H., Maeng, S. K., & Kim, C. K. (1988). *Adolescent development psychology*. Seoul: Sekwang.

Kim, M. R. (2001). *The effects of anger levels and anger expression models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Kwon, H. J. (1994).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anger of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ee, Y. S., & Cho, J. Y. (1999). A standardiz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dolescent'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8, 794-804.

Linden, W., Hogan, B. E., Rutledge, T., Chawla, A., Lenz, J. W., & Leung, D. (2003). There is more to anger coping than "in" or "out". *Emotion*, 3, 12-29.

Modrcin-McCarthy, M. A., Pullen, L., Barnes, A. F., & Alpert, J. (1998). Childhood anger: So common, yet so misunderstood.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1(2), 69-77.

Musante, L., Treiber, F. A., Davis, H. C., Waller, J. L., & Thompson, W. O. (1999). Assessment of self-reported anger expression in youth. *Assessment*, 6, 225-233.

Park, S. H. (1994). *Use and effectiveness of coping strategies employed by adolescent in anger-provoking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Park, Y. J., Baik, S. I., Choi, Y. H., Shin, H. J., Moon, S. H., & Khim, S. Y. (2005). The relation of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to cardiovascular responses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371-1378.

Park, Y. J., Baik, S. I., Shin, H. J., Yoon, J. W., Chun, S. H., & Moon, S. H. (2006). Anger, cardiovascular health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Korean me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863-871.

Park, Y. J., Hahn, K. S., Shin, H. J., Kang, H. C., & Moon, S. H. (2004). Anger, problem behaviors, and health status in adolescents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 1234-1242.

Piko, B. (2001).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adolescents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Record*, 51, 223-236.

Spielberger.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Whitesell, N. R., Robinson, N. S., & Harter, S. (1991). *Anger in early*

*adolescence: Prototypical causes and gender differences in coping strategi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